광양 K-POP 페스티벌 함께 즐겨요

17·18일 이틀간 다채로운 무대
아이돌·트로트…화려한 라인업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도 열려
전석 무료…가을밤 흥겨운 추억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이 오는 17·18일 광양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함께 화려한 라인업으로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페스티벌은 아이돌, 발라드 등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선보이는 K-POP 무대와 참여형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지며 광양의 새로운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첫날인 17일에는 경서, 아홉, 우디, 트리플에스, 헤이즈 등 젊은 세대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는 아이돌과 댄스 뮤지션들이 출연해 페스티벌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18일에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로 가을밤 잊지 못할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1부는 어반자카파와 웬디, W3WAY와 솜이 깊은 울림으로 가을밤 정취를 물들이고, 2부에서는 박군과 지원이가 흥겨운 트로트로 전 세대가 즐기는 공감형 콘서트를 완성한다.

이에 앞서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본선이 주무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공연은 양일 모두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가량 진행되며, 관람객 입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정문·가문·라문 3곳의 출입구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석 무료입장으로, 사전 예매분은 이미 매진되어 전국적인 관심과 높은 기대감을 입증했다.

시는 미처 예매하지 못한 관람객을 위해 행사 양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에서 당일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며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관광축제의 위상에 걸맞은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문·방송·광양관광 공식 SN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를 진행해 현장 열기를 전국과 해외로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현주 광양시 관광과장은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은 음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로, 광양공설운동장은 관객의 함성과 열기로 가득 찬 생동감 넘치는 현장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고 안전하고 품격 높은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해남우리종합병원 전경.

해남우리종합병원 심혈관질환 안전망 선도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우수 평가

해남우리종합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심뇌혈관질환(뇌졸중)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해남우리종합병원은 조선대 병원, 전남대 병원, 목포 한국병원, 목포 중앙병원, 순천 성가롤로 병원, 광주 KS병원, 첨단병원 및 광주 보훈병원등의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전남 서남부 지역(해남, 강진, 완도, 진도, 장흥)과 인근 의료 취약지역(의료 사각지대)의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또 해남우리종합병원은 '클라우드 기반 의료서비스 소외 지역 뇌출혈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전자의무기록 연계 뇌출혈 통합솔루션 탑재와 비대면 협진 플랫폼 선도기술 개발'에도 참여했다.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주성필 교수를 중심으로 여러 참여기관과 뇌졸중, 뇌혈관질환 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여순10·19사건 홍보관 '역사관'으로 명칭 변경

여수시가 여순10·19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순10.19사건 홍보관'을 '여순10.19사건 역사관'으로 명칭 변경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히 역사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진정성 있게 담아내고 여순사건 평화재단 및 평화공원 유치의 당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역사관'이라는 명칭은 여순10·19사건의 희생과 교훈을 올바르게 전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순10.19사건 역사관은 지난 6월 18일 개관 이후 유족, 시민, 학생 등 25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조사 연장 등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과 유족이 함께 기억하는 역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순10.19사건 홍보관' 명칭이 '여순10.19사건 역사관'으로 명칭 변경됐다. 명칭 변경은 여순10·19사건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정됐다.

여수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서남권청소년축제 18일 목포서 열린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기획·운영

제21회 서남권청소년축제가 '유스(YOUTH) 토피아 인 목포'를 주제로 18일 로데오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전남 서남권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하는 축제는 식전공연과 경연프로그램(StageON), 체험부스운영(PlayON), 참여형 프로그램(7종)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식전공연에서는 목포백련초등학교 6학년 임사랑 학생의 국악공연과 비보이팀 뉴웨이브의 무대, 그리고 국악·비보이·디제잉이 어우러진 컬래버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경연무대에서는 보컬·댄스·밴드 등 26개팀이 경쟁한다. 또 청소년동아리 및 청소년기관 55개팀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PlayON)과 참여형 프로그램 7종도 운영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환경보호와 건강을 동시에 실천하는 에코 챌린지(줍깅), 현장 미션과 퀴즈를 통해 빙고판을 완성하는 빙고 아케이드, 체험부스 도장 미션을 완료하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남권 도장깨기,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길바닥 드로잉 존 '나도 거리의 피카소' 등이 마련돼 있다.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고 운영하는 '청소년 주도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순천시 김풍 작가·오시야마 감독 토크콘서트

17·18일 어울림도서관 어울마당

순천시가 오는 17일과 18일, 어울림도서관 어울마당에서 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국내외 유명 인사인 김풍 작가와 오시야마 키요타카 감독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2025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전 in 순천' 행사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먼저 17일 오후 5시, 인기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김풍 작가가 순천시 어울림도서관 어울마당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폐인가족'·'찌질의 역사' 등의 작품을 탄생시킨 대한민국의 1세대 웹툰 작가 김풍은 웹툰 시장의 개척자로서 인정받는 창작자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콘텐츠 산업에 관하여 소통하고 창작자의 삶, 그리고 청년들에게 전하는 진솔한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이어 18일 오후 2시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감독 오시야마 키요타카가 같은 장소에서 강연을 펼친다. '플립 플래퍼즈'·'룩 백'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연출 및 작화에 참여해온 오시야마 감독은 애니메이션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제작 노하우,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통찰을 관객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조명하고, 시민들과 창작자 간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콘텐츠에 관심 있는 시민, 학생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2025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전 in 순천'은 올텐가와 연계해 개최되며,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정원워케이션과 어울림도서관 일원에서 열린다. B2B 행사로 비즈니스 상담회, 기업 네트워킹 데이 등이 진행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천년고찰 장흥 보림사서 18일 '비자림 음악제'

장흥군이 18일 보림사에서 '노벨문학도시 장흥,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를 연다.

음악제는 장흥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문학과 예술,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축제로 기획했다.

공연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김경호와 9인 밴드가 폭발적인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감성 보컬 가수 적우와 멜로(Mellow) 현악 3중주는 고찰의 풍광과 어우러지는 서정적인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사회는 배우 오지호와 '2025 미스코리아 제주진' 함지윤 씨가 맡는다.

부대행사로 전미란 화백의 민화 작품 30점이 전시되고 지역 특산물 판매, 문화제 해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 공연이지만 모바일 티켓 신청이 필요하다.

BBS광주불교방송, 광주 백선청원모밀, 화순 석천사, 장흥군청, 보림사 등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